



정읍시, 학교폭력 예방 위해 지역사회와 ‘맞손’

정읍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위원장 유호연 부시장)는 지난 19일 평생학습관에서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 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기관 간 협력망을 구축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협의회는 정읍시를 비롯해 필수 연계 기관인 교육지원청, 경찰서, 시의회 의원, 일선 초·중·고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13명의 위원이 참석해 △위촉식·부위원장 선출 △2024년 학교폭력 예방 추진실적·2025년 추진계획 보고 △기관·단체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유호연 위원장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기관 간 협력과 연계 활동을 더욱 촘촘히 해, 정읍시가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코레일 관계자 초청 팸투어 진행

남원시는 지난 18~19일, 코레일 관계자들을 초청해 남원만의 맛과 볼거리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추진하기 위해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코레일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코레일 관계자들에게 남원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팸투어에는 남원시의 대표적인 미식 여행지와 관광 명소들이 포함되며, 남원의 이색적 음식은 물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혼불문학관 등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두루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관광무원의 아경과 새롭게 개관을 앞둔 달빛정원과 스마트트리를 연계한 이간관광에 높은 관심을 보여, 숙박과 연계한 체류형 여행 상품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코레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3월 13일에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남원시를 대표하는 여행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고창소방서는 지난 20일 고창동다국어당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30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소방관들과 함께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 5명이 교관으로 참여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적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심장지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통해 참여자들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고령층이 쉽고 효과적으로 응급처치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개우고, 알리고, 누르고’라는 ‘3고1’ 원칙을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개우고’ 의식 확인 후 ‘누르고’ △알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 신고’ △누르고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시행’이라는 간단한 요령을 강조해 어르신들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윤정숙 어르신은 “실제 상황이 오면 막막할 것 같았는데, 직접 실습을 해보니 자신감이 생겼다”며 “배운 내용을 활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석진 기자

‘생명을 구한 영웅들에 주어진 영예의 상’

전북소방,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수여... 구급대원 등총 89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심정지 뇌졸중 중증 외상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구급대원, 도민 등 총 89명(일반인 4명 포함)을 2024년 하반기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로 선정했다.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일반인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이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아들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이번에 하트세이버는 수상하게 된 완주 봉동여성의용소방대 이정란 부대장은 지난 해 11월 등산 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이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세 차례 전기 충격을 가하며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브레인 세이버를 받게 된 전주덕진소방서 금암19구



급대는 지난해 7월 ‘하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신속한 뇌졸중 선별검사를 통해 뇌졸중을 정확히 판단하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다. 해당 환자는 즉시 시술을 받아 완전히 회복한 후 퇴원했다.

군산소방서 지곡19구급대는 2024년 10월 추락 사고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평가한 후 중증 외상 환자로 판단했다. 부목 고정과 정맥로 확보를 통해 쇼크를 방지하며, 권역의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해 생명을 구해 트라우마 세이버를 수상하게 됐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들의 헌신과 함께 응급상황에서 도민들의 용기와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큰 힘이 됐다”며, “그들의 영웅적인 활약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청 컬링팀, 제106회 동계체전 준우승

전북특별자치도 컬링팀이 제106회 동계체전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결승에 진출했으나, 강릉시 컬링팀과의 결승에서 아쉽게 패배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컬링팀은 예선부터 강력한 상대들을 상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순조롭게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예선에서의 안정된 경기력과 준결승에서 펼친 치열한 접전에서도 팀원들의 단합과 전략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

결승에서는 강릉시 컬링팀을 상대로 접전을 펼쳤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경기가 이어진 끝에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체육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체육 인프라와 선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학생수련원-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강안원)은 지난 21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소장 윤대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련교육 실행 안전 체험 학습 활동 지원 △청소년 자연 생태 학습에 관한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 △시설 공유에 관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수련원은 고등학생 금제프로그램에 국립공원 안전팀과 자연환경해설사 등 전문 인력을 지원받고, 특별과정으로 뱀사골 자연 생태탐방 등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도동동지사협, 찻떡궁합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관내 찻떡궁합(대표 최미현)에 착한가게 35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 (월 30만원 이상)을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기여를 실천하는 가게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업을 희망하거나 기부를 원하는 분은 도동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나눔을 함께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윤봉,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호응’

남원시 윤봉은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지난 21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이날 안전교육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작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협대, 협안 등의 간이검사를 통해 맞춤형 건강 상담으로 위급 상황시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이은주 윤봉읍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점검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송현만 부의장, 통일장학금 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지난 21일 오후 2시에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북한이탈주민 세대 청소년들에게 통일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2024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세대 청소년 중 초·중·고·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전북하나센터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입생 51명에게 천사백삼십만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장학금을 수여했다.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송현만 부의장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통일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이날 오전 11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전북지역운영위원회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의 송현만 부의장 주재로 열렸으며, 전북지역 협의회장 및 지역회의 간부위원 등 운영위원 24명, 사무처 위원지원국장·전북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처 업무보고, 2025년 전북지역회의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정이 혼란한 시기에 국민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통일여론을 반영한 현장형 정책건의 및 통일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가운데 사무처 업무보고, 2025년 전북지역회의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정이 혼란한 시기에 국민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통일여론을 반영한 현장형 정책건의 및 통일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 전북대 부안캠퍼스 미래 농산업 인재 첫 배출

부안군과 전북대학교, 산업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전북대 부안캠퍼스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가 지난 21일 부안에 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2024학년도 제1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과 개설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의장, 백승우 학과장을 비롯해 졸업생과 가족, 내빈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우수 졸업생 시상, 학위 수여,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 등이 진행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졸업생 19명은 지난 2021년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에 입학해 농생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쌓은 4년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며 학업에 매진한 졸업생들은 이날



가족과 후배들의 축하 속에서 감격스러운 졸업의 순간을 맞았다.

특히 이날 학과 총학생회에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 학금 100만원을 기탁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진성 학생회장은 “앞으로도 학과 발전과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졸업생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 부안의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 기회가 넘쳐나고 꿈꾸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군도 졸업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비전대 비전한국어센터, 2024년 겨울학기 수료식

전주비전대학교 비전한국어센터는 지난 21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겨울학기 유학생 한국어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우병훈 총장, 이효숙 국제교류원장, 한국어 강사들과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48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어학연수 소감발표, 수료증, 토크장학금 수여, 기타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국제교류원 이효숙 원장은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한 유학생들이 고맙다”며 “앞으로도 비전한국어센터가 더욱 흥미있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에는 현재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11개 국가 7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장은성 기자